

## 시흥시 산현축산작목반의 환경오염방지 사례

박덕병\*. 정지웅\*. 윤상준\*\*

\*서울대학교 농생대·\*\*시흥시 산현동 축산작목반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시흥시 산현동 축산작목반과 서울대학교 농촌사회교육전 공내의 참여연구회 회원은 공동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도시근교의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연구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그린벨트 지역내의 토지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이 좁고 타인소유의 농지가 많아 축사시설을 확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그린벨트 규제로 인하여 축사시설과 운동장, 사료포와 연계체계를 이루어 효율적인 영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대지면적이 좁은 여건에서 축사시설을 하다보니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퇴적물 보관장소인 퇴적장 시설 또한 시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노천퇴적을 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규제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목반 회원들이 토의한 끝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생산구조 개선방안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93년 3월에는 2농가만 설치하였는데 참여연구 과정을 통하여 다른 회원농가들에게도 설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낙농반원의 10농가 모두가 정화조를 설치하였고, 다른 비회원농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4개 농가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가축이 놀 수 있는 운동장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사료포를 이용하여 회전식 방목식 운동장을 확대하고자 우선 1농가가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점차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2농가만 사료포가 축사와 인접해 있어 축사관리시간과 운동장 관리시간이 짧은 반면에, 다른 농가는 사료포가 2-3개로 나누어져 있고 축사도 떨어져 있어서 축사 및 운동장 관리시간과 사료작물 수확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좁은 축사시설과 사료포와의 거리 때문에 분뇨를 사료포에 빨리 살포하지 못하고 축사근처에 야적함으로 인하여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참여연구를 통하여 작목반원들은 왕겨나 톱밥 발효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몇회원농가는 이 발효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연구과정을 통하여 농민들이 이미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효율적인 작부체계를 지속적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농법과 연계하여 그린벨트 지역을 제한과 규

제위주의 정책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이 지역을 더욱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린벨트 지역내의 농민들이 깨끗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이 지역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호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기존의 주체객체의 형이상학적 전통에서는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접근이 일상적 실천으로부터 유리된 순수이론의 영역에서만 합리성이 관철될 수밖에 없어 환경오염방지에 주민들이 수동적으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오염방지 과정이 주민들의 능동적인 의식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연구법에서는 실천적 학습과정을 통한 능동적인 의식변화 과정이 수행될 수 있는 수행적 관점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행적 관점은 의사소통과정 그 자체의 실천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관한 의사소통은 '환경오염방지에 대해 해석하는 언어'와 '주민들이 생활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실천적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실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